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진중의 '쾌도난마'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40 특선다큐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물다>(재)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내인생의 준비)
9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뉴스 40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채널 A 뉴스	00 스퀘트(재)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재)	00 MBC여성토크 <워드>	00 SBS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구름빵 40 그 여자 그 남자 스페셜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 10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1~2부	00 KBS결혼선 (동인미녀)(재)		00 통일전망대 45 MBC스포츠 <꿈나무 축구대회 전국결선 결승전>	30 엄마랑 아빠랑 지구한바퀴
2	00 KBS 뉴스 10 필 통(재)	00 대국민 토크쇼 인정하세요(재)	55 도시탐험M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판관 포청천 2012(재)	05 콘서트 필2 55 바르셀로 고문살(재)	00 영상앨범 산 스페셜(재) 30 KBS 뉴스타임 35 공부 공룡수호대(재)	10 MBC뉴스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
4 50 박진중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김매기도시 부산>	00 뽀뽀방구즈(재) 30 TV유치원	00 뽀뽀방 아이조이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동화속 과학탐험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알록달록 종이마을 30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00 MBC플러스 특선 <유지 코믹쇼>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당신을 사랑합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쇼 1~2부	00 MBC뉴스 10 생방송 월화수목 50 생방송 전국시대	
7 00 잠금해제 2020(재) 40 이영돈PD의 막걸리 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45 일일시트콤 <스텐비>	20 일일드라마 <그레도 당신>
8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스타 인생극장 50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못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5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55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	55 월화드라마 <신의>
10 00 뉴스A	00 기요무대			
11 0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00 KBS 뉴스라인 40 베이스볼 매거진(야호)	05 대국민 토크쇼 <인정하세요>	15 특집다큐멘터리 <지구 절경기행>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박진중의 '쾌도난마' (1) 10 판다양과 고슴도치(재)	30 KBS특선 <아프리카스틴의 복싱소녀들>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100대민중문화상징스페셜 25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25 내일 45 감성여행 간이역 스페셜

김민중 “계속 윤이오빠로 남고 싶어요”

SBS '신사의 품격' 종영... “가수 복귀 계획 없어”

“얼마 전 매니저가 시범시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할지 무어지경인 상황입니다. 헤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배우 김민중(40)<사친>은 아직 작품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윤이는 10~20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아갈 인물이 아닐까 싶다”는 그의 말에는 진한 아쉬움이 배어있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에 그는 “부담스럽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방해 안 되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작품에 임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1988년 데뷔한 김민중은 드라마 ‘느낌’ ‘비밀’ ‘미스터큐’ ‘머나먼 나라’ ‘수호천사’ 영화 ‘있잖아요 비밀이요’ ‘10대의 반항’ ‘3인조’ 등에 출연하며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착한 사랑’ ‘하늘 아래서’ ‘귀천도애’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수로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다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며 차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신사의 품격’은 그에게 오랜만에 대중의 사랑을 재확인시켜준 작품이었다. 김민중이 작품의 인기를 실감한 곳은 흥대였다.

“홍대에서 촬영할 때 10대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 구름 같이 물려왔어요. 전에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 가시더라고요.(웃음) ‘김민중’ ‘윤이오빠’ 그러는데 가슴이... 어휴, 4인방 모두에게 영광해 줘서 감동받았어요.”

김민중은 남자 주인공 4인방 중 다시 선택 하더라도 최선을 고수할 정도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18살 차이가 나는 상대역 윤이(22)에 대해서는 “진이가 잘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시청자들한테 저쪽이 높으리 뻔했다”며 치켜세웠다.

그는 “진이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이 같고 동생 같다”며 “오래 봤으면 하는 친구”라고 덧붙였다.

김민중은 드라마에 얽힌 뒷이야기도 전했다. 대본상에는 14회 프롤로그에서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봤던 드라마가 방송에 나온 ‘모래시계’가 아닌 자신이 주연한 ‘느낌’이었다는 것.

그는 “자극적 문제로 ‘모래시계’로 바꿨다”며 “윤이가 ‘느낌’ 주제곡을 ‘내 18번이 있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많이 아쉬웠다”고 털어놓았다.

‘신사의 품격’에 그의 노래인 ‘아름다운 아침’ ‘하얀 그리움’ 등이 등장하면서 자연히



그의 가수 복귀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게다가 그는 아이돌 스타들이 대거 포진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가수 보아보다 ‘한참 아래 서열’이지만 현재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SM C&C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민중은 그러나 “앨범 계획은 아직 없다”며 “요즘 가요계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신사의 품격’을 통해 남자 배우들과 정이 더 깊어졌 것 같다는 그는 김은숙 작가와도 술자리를 함께하며 친구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BS		
06:00 헬스투데이 (중풍과 당뇨 예방 - 뇌를 깨우는 체조)	09:30 뽀뽀방구즈 울리 09:45 실용영어 피지 10:00 달라졌어요	<병사는 만들어진다> 15:40 EIDF 2012 단편다큐멘터리 <타인을 보는 눈>
06:30 어린왕자 (정정자 할머니 기자의 실버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헌지의 침술수 없는 맛의 유혹, 이식-닭강정과 오이샐러드)	15:10 특수요원 오소 15:35 꾸러기 상상여행 16:00 땀땀방 유치원 1~3(재) 16:30 실용영어 피지(재) 16:45 숲 속 친구 파파를라(재) 17:00 방구대장 뽀뽀방(재) 17:1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7:15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7:30 뽀뽀방 울리(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나하니 1~4
07:00 어린왕자 07:30 이기공룡 버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땀땀방 유치원 1~3 08:30 부릉부릉 브루미즈 08:45 숲 속 친구 파파를라 09:00 방구대장 뽀뽀방 09:1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뽀뽀방 울리	11:20 부모 <엄마표 창의력 미술 놀이 2>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지구를 위한 2분 12:30 EIDF 2012 다큐속의 영향 <블레이 앤 플레인> 13:05 EIDF 2012 월드 쇼케이스	18:50 외곽마을 친구들 19:00 뽀뽀방 19:10 어린 왕자(재) 19:35 달라졌어요 <부모-내 마음을 알아줘 일곱 살 유림이네, 가족되기> 20:25 지식재능 20:30 EBS 뉴스 20:50 EIDF 2012 페스티벌 초이스 <첨단기술, 허류인생> 22:25 EIDF 2012 애드초이스 <엄마 품에서> 24:00 EIDF 2012 페스티벌 초이스 <그들의 세상>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4 대부수능 스타트 (남궁민의 국어 A형) 00:50 <윤정환의 영어 A형> 01:40 고3 9월 모의평가대비 (틀리!) 02:30 <회학 1> 03:20 고1 학교시합대비 (수학해) 04:10 고2 <미적분과 통계기분> 05:00 <적분과 통계> 05:50 2012 포스 <김경환의 기하와 벡터> 06:40 2012 토크쇼 <강봉규의 한국지리> 07:30 <한중철의 생명과학 1> 08:20 2014 대부 수능 스타트 (외국어 영역) 09:10 <이희영의 미적분과 통계기분> 10:00 2012수능완성 <강봉규의 한국지리>	10:50 <송점석의 생물 11> 11:40 <송원희의 지구과학 11>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13:00 2012수능완성 <한도균의 법과사회> <박분의 정치> <민병권의 세계지리> <정진선의 물리 1> <기상중의 화학 1> <정현경의 미적분과 통계기분> <이재현의 기하와 벡터> <윤해정의 언어> <외국어 영역>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07:00 201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EBSe 생활영어 08:00 조리기능사 시험대비강좌 08:30 의·치·약학 적성 시험 대비특강 09:10 EBS 중1 2학기 <문학> 09:50 <비문학> 10:30 EBS 중2 2학기 <문학> 11:10 <비문학> 11:50 EBS 중3 2학기 <문학> 12:30 <비문학> 13:10 이이גי 한국사 13:50 이이גי 수학사 14:30 EBS 클리닉 14:50 한자지도 돈로롱 15:10 생물이 생선!	15:20 초등 내공남남 <국어 3-2> 15:50 <국어 4-2> 16:20 <국어 5-2> 16:50 <국어 6-2> 17:20 초등개념잡기 <수학> 18: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과학> 18:40 <국어> 19:20 <영어> 20:00 <수학> 20:40 EBS 중1 2학기 <비문학>(재) 21:20 EBS 중2 2학기 <문학>(재) 22:00 <비문학>(재) 22:4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3-2> 23:20 중1 퍼펙트 체크업 <수학1-2> 24:00 EBSe 생활영어(재)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31일 癸丑)
子	36년생 집착할수록 벌어질 수다. 48년생 이질감이 생기기 않도록 잘 이끌어 주자. 60년생 상당히 큰 빈틈이 보인다. 72년생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4년생 굳이 유명해지는 스타 일만을 고집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5,60	42년생 불규칙적으로 출몰하여 그 변화를 헤아리기 힘들겠다. 54년생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자. 66년생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직접적인 상황에 부딪칠 것이니 준비 하자. 행운의 숫자 : 15,34
丑	37년생 극단적인 상황을 각오하고서라도 행해야 한다. 49년생 상대는 갑자기 밀려나자. 61년생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73년생 부근에만 가도 소문이 자자하겠다. 85년생 타산적이라면 벗어났다. 행운의 숫자 : 71,09	43년생 체면만을 따지다가 기회를 놓칠 수다. 55년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져서 좋은 현상을 이루겠다. 67년생 순환되어야 할 것이 갑자기 정지될 수 있다. 79년생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나라. 행운의 숫자 : 38,88
寅	38년생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50년생 예상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62년생 여러 사람에게 자제히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 74년생 적절히 배합한다면 생산적인 발전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29,72	44년생 가슴 속 깊이 간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온다. 56년생 역할과 소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68년생 까맣게 하면 어예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80년생 너무 과한다면 부족함만 백 번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4,20
卯	39년생 본격에 앞서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하느니라. 51년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참고 견디어 내야만 한다. 63년생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하라. 75년생 덕을 베풀어 포용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1,12	45년생 광망 모두에게 책임이 있느니라. 57년생 한 번 실행되면 뒤이어 연속될 수밖에 없다. 69년생 진행 속도는 줄었지만 정 계속 되어야 하느니라. 81년생 득이 되겠지만 파생되는 실도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67
辰	40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하자. 52년생 멀리 하거나 차별 대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느니라. 64년생 아주 쉬운 일이나 특별히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 76년생 한 번 비틀어지면 견잡을 수 없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2,58	46년생 거침없이 추진하여도 될 아주 길한 운이다. 58년생 반감을 사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줘야겠다. 70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파격적인 방법이 생길 것이다. 82년생 자유로운 의사대로 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2,73
巳	41년생 지배적인 상황을 파악하자. 53년생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준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65년생 참신한 문서나 서적을 만나 는 기쁨이 있다. 77년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이다. 행운의 숫자 : 66,25	47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59년생 기후와 분위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생겼다. 71년생 무리만 그럴싸한 편지 내용은 부실하다. 83년생 상대는 우호적인 관계를 견지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5,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Could you recommend a good doctor? 실력있는 의사를 추천해 주실래요?</p> <p>A : Could you recommend a good doctor? B : Dr. Park in the Easy-feeling OM clinic is our family doctor. We think he is very excellent. A : I see. I've already heard of the clinic's authority. Thank you. B : You're welcome.</p> <p>A : 실력있는 의사를 추천해 주실래요? B : 편안마음 환의원에 계시는 닥터 박이 저희 집 주치의세요. 그 분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A : 그렇군요. 이미 그 병원 실력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B : 필요.</p> <p>* 가정의 = home doctor ~ (×) = Family doctor[general practitioner] ~ (○) * authority : 권위, 실력</p>	<p>白眼視(백안시) 흰 백, 눈 안, 볼 시</p> <p>백안시(白眼視)란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즐겨본다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노장의 철학에 심취하여 대나무숲 속에 은거하던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외범절에 얽매진 지식인을 보면 속물이라 하여 백안시했다고 한다. 어느 날,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형 혜희가 찾아가자 완적이 냉대하여 즐겨했다. 혜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찾아가자 완적은 크게 기뻐하며 청안으로 맞이했다. 이처럼 상대가 친구의 형일지라도 완적은 그가 속세의 지식인인 이상 청안시하지 않고 백안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완적을 마치 원수 대하듯 몹시 미워했다고 한다.</p> <p>[출전] 『진서(晉書)』(원적전(阮籍傳))</p>	<p>开门见山 kāi mén jiàn shān 문을 열어</p> <p>문을 열고(开门/開門) 산을 보다(见山/見山). 이 네글자를 처음 본 순간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줄거리는 가물거리는데 영상이 아주 멋진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다. 화면 가득 들어오는 산사, 동자승을 부르는 노승의 목소리, 아마도 ‘해진’으로 불렸던 것 같다.</p> <p>开门见山을 보면 그런 분위기로 호를 것 같은데, 중국어로는 단도직입(單刀直入) 이것도 중국어 표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이나 문장을 쓸 때 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p>	<p>家賃はいくらですか。 집세는 얼마입니까?</p> <p>A : 契約は1年間でしたな。 B : 家賃はいくらですか。 A : 一ヶ月7万5千円に、管理費が8千円です。 B : では、合わせて8万3千円ですか。 ちょっと高いですね。 A : いいマンションの家賃は少し高いですよ。</p> <p>A : 계약은 1년간이었지요. B : 집세는 얼마입니까? A : 한 달에 7만5000엔에다, 관리비가 8000엔입니다. B : 그럼 합해서 8만3000엔인가요? 조금 비싸군요. A : 좋은 맨션의 집세는 조금 비싸요.</p> <p>契約(けいやく) 계약 管理費(かんりひ) 관리비 合(あ)わせる 합치다 マンション 맨션 少(すこ)し 조금 高(たか)い 비싸다, 높다</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